

# “제주 본향당 이야기”

## - 구좌읍 하도리 여씨할망당 신화 -

1. 채록대상자 : 고순안/심방
2. 채록 일자 : 2017.06.13

아주 옛날에는 할망당 할망당 갔다오곡 했는데 어머니 산 때에 그 동동네 분이 아기가 어서서 막 하도 공을 들고 하난 어머니님 하는 말이

야 느 삼매쳐그네 할망신디 와보라 삼매천 완 하난 세 번만 오라 안되켜 첫 번으론 안되켜 헨 세 번 왕 간 게 그 할망이 들어섰던 모양이라 들어사난 그 사람 아들이 성젠가 세 성젠가 나실거라.

경한 글로부터는 자손들 아기 엇어가민 당에 오라 읍서, 오라 아기 낭 엇어져가도 이디 와 그네 호꿈 공 드리라 할마님 곳 해영 공 드리라 막 아기를 못 난 사람도 와서 공을 들이라 해서 이디 와서 수덕 받 간 사람 많해여.

제주 삼읍 구좌관내에 제주시관내에 해서 와그네 공들여 간 사람도 많아서 이제 여씨할마님은, 이제 여러불도 삼신할마님이엔 한 거를 여씨할마님이다.

게난 여산 땅에서 솟아난 여러불도 삼신할마님. 경 해서 이 그거는 여씨할망이엔 한 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써 왔느냐면

옛날 강신숙이 오빠엔 한 어른이 하도당이 면수동에 있고, 요쪽에 우리 큰당이 있고 한디 원칙으론 이디 우리 좌정한 디가 첫 번에 좌정을 시겼고 4.3 사건 되가니까 하도리 저 면수동 옛날엔 해병물이엔 했어 그디.

해병물해서 그디 요만하게 움막집 짓어네 귀 하나 놓고 할마님 머리 놓고 해서 옷에 해다 걸고 아기 아파그네 자박자박 해가도 할마님신디 옷 행 왕 걸었던 아기 아파가민 이 옷 앓다당 입어보라 괜찮은다. 경 해네 그 옷을 입으은 이제 키와네

이때까지 하니까 본향에 자손들이 이제 뭐하고 이젠 또 나이 들어가고 노친네들은 찾아오건 다 가불고, 게 다 돌아가서 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특혜로 해서 이제도 더 해야될 건데 이제는 옛날 닳지 안해서 이 곳이나 뭐나 베랑 하는 데가 없어 이 구좌 관내는.

경해서 하고 인간불도 할마님은 옥황상제 따님아긴디 옥황에서 이제 내려살 데에 절간에 천왕보살 지왕보살 인왕보살이엔 헨, 보살이 게난 것이 여자인 모양이라 게난. 성제를 맺어가지고 인간불도 할마님을 들어아잔,

훈착 손엔 번싱꽃, 훈착 손은 환싱꽃, 동창묵은 서백 남장수는 북하구, 경해서 할마님 맹질술장을 열두장술 호양매감칠 처녀물치게 입어그네, 노각성 즈부연줄이렌 한건 할마님 딸이 금주란 철쭉더레 내려사난 인간 생불 할망 느네들 꽃을 심귀보랜 저승할

마님하고 이승할마님하고 꽃을 심그난 이제 이승할망은 풀리는 외가지에 가지는 사만 오천육백가지를 벌여지난, 널라그네 인간 생불 할마님으로 들어산 자손들 내와주곡 이제 생불시겨 주곡 이제 열다섯 십오세 걸루와주라.

그래서 인간생불할마님으로 들어사고 저싱 할마님 꽃은 가지는 외가진디 불리가 사만오천육백가지를 벌여지난, 널라그네 저싱할망으로 들어상 아기들 생불을 주젠하민 포태주젠 하민 석달만이 물로 피로 걸러불게 한건 유산시켜부는거.

유산시키고 열덜 과만춘삭 차그네 아기어멍이 아기돌양 앓아지민 저싱할마님은 아양삼싱 걸레구덕 삼싱 정포 정세 만경 느진거 벗든거 밧녁세 남녁세 피리리 밀리리 자는 정괘 누는 정괘를 불러쥬

이제 저싱드레 돌아가민 널랑 저싱에서 이 아기들을 거늘러라. 저싱할망으로 들어산 거늘러랜 한디 임나라 임병서엔 한건 마누라 마누라 주는 임나라 임병서주게.

계난 임나라 임병서가 양반이 된 말을 타네 가는디 인간 할마님이 석자 수건 쓰고 아르란 작대기 돌로 짚언 가노랜 하난 이젠 임병서 하는 말이 남자에 대장부 가는 길에 길을 갈람젠,

경한 과썸허던 헝명 하르방은 말탄 가부난. 지도 내가 내온 자손인디 과썸하던 헝 임나라 임병서 아들 장가 가게 되난 감매영봇줄에 딸 앓안 가난 할마님은 생불을 쥘어, 생불을 주난 한달두달 열달 과만춘삭하민 생불시겨주카 부덴 하난 아니 시켜주난, 열두달까지 가난 아기어멍이 죽을 사경이 된 거 아니.

경 허나네 아차 임나라 임병서가 안될로구나. 겐 이제 할마님신디 간 백보 베꼿딜로 느람지 패와난 도구리 얹어난 이제 할마니 앞에 빌언 공구하십니다.

영 헝 저들르난 어떻하난 우리 동네 오쭈내 지렁내 나는 할망신디 왕 공구하십니다 하난

난 임나라 임병서인디 우리 조부가 죽을 사경이 뻤수덴. 경한 할마님 간보난 금상비단 한 이불 원앙비개 접비개 누어시난 북덕다리 옛날엔 북덕. 뭐 해여그네 보리치 가리 들렁 옛날 아기 날댄 해 낫주게.

그디 헝 할마님이 옷을 벗언 간지 곤지 걸어될 할마님 훈착 손으로 이래 저래 썸거라. 할마님 아기 젓줄을 등견 열두 구문을 열어 할마님 생불을 시겨줍서. 생불 시켜쥬 될 할마님은 가분거라.

계난 아기난 보난 눈도 코도 엇인 아기라. 겐 또 임나라 임병서가 가네 공구하십니다, 할마님. 넌 너 자손이 아깝고나 하난. 우리 자손은 이제 마누라 주랜 헝 놔두난 얹어진덴 얹어지고 틀어진덴 틀어지고 비틀어진덴 비틀어지고 자우라진덴.

옛날 말하민 송덜 봐그네 패적도 내와불고 경 해났주게. 경 허난 계민 할마님 우리 애기만 잘 해주면 매꿀만이 매꾸쿠다 매울만이 매우쿠다. 게서 할마님이 간 내런 은과세로 코 주쟁이를 썸악하게 건드난 아기 봇줄을 열려 옥동자가 앓았구나.

계난 할마님아 나 기술이 좋덴해여도 할마님 기술만이 못내점수다. 할마님 머리 비영 용광게 직신을 한마디인들 할마님 공을 다 갚을 수가 있수과.

사흘 아기나민 사흘 매영 할마님 궤 우트레 거려 놓구다. 칠일 매우쿠다 삼칠일매

할마님 나시 거려놓쿠다 해서, 옛날엔 아기 나민 사흘만이 매도 해놓고 일주일 매도 해놓고 이제 일주일 되면 또 매 놓고 하난 옛날엔 경해서 해났주.

경해신디 이제는 아기나민 나팔자 나곡 해서 해주마는. 그때는 그렇게 해서 할마님이 경 해나난, 임나라 임병서가 나도 기술 있주만은 할머니 기술을 당하지 못허쿠덴.

할마님 공 들러일라 값을 수가 없수덴 고맙습니다 영 헨 할마님 자손 이 마누라 준 거를 영허민 옛날엔 마누라 배송하젠 하면 사름차게 네 개 풍경 달고 이젠 구경 해여 그네 쌀도 놓고 모든거 다 놓주게.

놉그네 우리 저 행일 한때에 마누라 배송하는 걸 한 번 봐신디 상성주에도 하직합니다. 중성주에도 하직합니다. 하성주에도 일문전도 하직함수다. 마누라님 이 자손 좋게 마누라 배송 잘 해주난 고맙수다.

이제 터진 공방으로 해서 놓구다. 영 해그네 말 한메 타네 감수다. 영 해그네 할마님 배송 행 해놓고. 경행 허곡 저승할마님은 아기들 그디 동용궁 할망인디 동용궁할망이 이제 탄생하난 한달 아방눈에 굴리나고 어멍눈에 싯지나고 해가난 거부랑이만 해연.

거부랑이만 하난 요왕 쇠철이 아들 불러다가 무쇠솔각 채완 바당드레 던져분거라. 바당드레 던져부난 물아래 물우이 흔들망들 하단 무우남 상가지에 무쇠솔각이 오른거라. 계난 금바랑소리가 그냥 나거든 그래서 그 조름에 가보니까 무쇠솔각이 이신거라. 계난 그 여자가 간 무쇠솔각을 열령 보난 그 요왕황제국 딸이 이시나네 어째서 무쇠솔각 채왕 아방 한 살 두 살 세 살 났는데 아방 눈에 켜리나고 어멍 눈에 싯지나고 영 허난 거부랑이만 날래명석 옛날엔 명석해그네 날랭 놉두민 날래명석 허친대로 해서 조금 잡아네 무쇠솔각 채완 물아래 던져뵈수다.

계난 요왕황제국으로 해여그네 무우남 상가지에 해영 무쇠솔각 올려난 이제 그디는 요왕황제국제를 치주게. 요왕황제국제를 청 요왕황제국 따님애기 터진 공방으로 이제 회선할 때는 그때는 저승할마님하고 같이. 같이 곱을 갈라그네 저운국에 갑센 해그네. 그땐 할망나시 웃도 헨 주고 그디 아기들 간 아기들 나시도 남자애기나 여자애기 나민 영 놉그네 하고 지저냥 저 손수건이영 해그네 영 놉그네 그 할마님나시 잘 치성을 해서 아기들이 잘 크다해여그네 경 한거주.